

# 1 손실위험없앤 20조 정책펀드 2 9% 분리과세 공모형 인프라 3 자발적 투자처 발굴 민간뉴딜

## 뉴딜펀드 3종 세트

홍남기 “추진성과 국민과 공유”  
5대 금융지주서 5년간 70조 투입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펀드는 3종 세트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세제 혜택을 담은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다. 국민 누구나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도 뉴딜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정책 금융기관은 물론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한다”며 “뉴딜 투자에 따른 성과는 그 성격상 특정계층이 아닌 대다수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형 뉴딜펀드, 향후 5년간 20조원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 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새로 만든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이미 내년에 예산안에 정부출자분 소액 6000억원도 반영됐다.

홍 부총리는 “모펀드는 자금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줘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해 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라며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한다.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정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2억원 한도 배당소득 세제혜택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돼 운용되고 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 가운데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투자금 2억원 한도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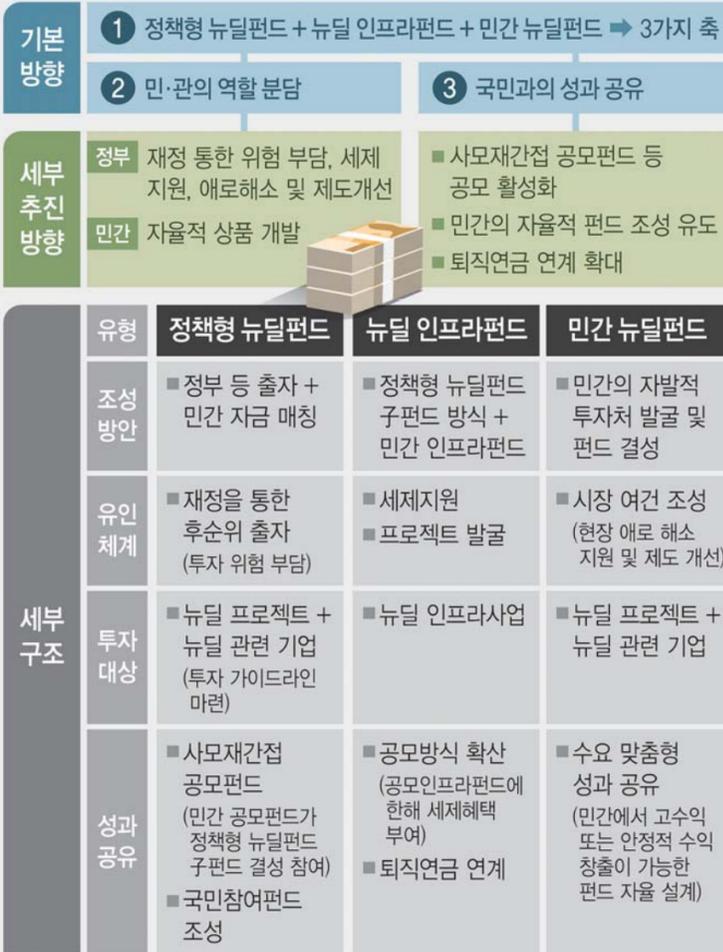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사업 대상채권의 경우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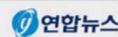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는 수익성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 뉴딜펀드 체계



자료/ 관계부처 합동



를 발굴하는 관건”이라며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제시에 속도 낼 예정이며,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간접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을 중심으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산업 업그레이드 기회... 성공에 자신”

###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뉴딜 필수조건은 규제혁신  
정부·민·관 함께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형 뉴딜 사업은 금융 산업을 한 차원 높게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마치면서 “금융권에서 뉴딜 펀드, 뉴딜 금융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 감사하다. 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니 한국형 뉴딜

사업이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만 규제 혁신을 맡길 게 아니라 민·관이 함께 모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의 필수 조건은 규제 혁신”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날 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이자 마중물이며, 그 병참지가 뉴딜 펀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를 “인류사에 처음”이라고 말한 뒤 “위기는 언제 끝나고, 다음은 새로운 질서가 전개된다. 빨리, 탄탄하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뒤 전개될 새로운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뉴딜 전략회의 이후 이날 연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문 대통령과 첫 오찬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오찬 사실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오찬에서 이 대표는 “재임하는 동안 오로지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며, 야당과 원칙 있는 협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 대표에게 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말과 함께 “든든하다. 언제든지 대통령에게 상의하시라”며 “주말도 상관없으니 전화하시라”고 화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사실상 원금보장... 자본시장 왜곡 없을 것”

### 홍남기·은성수 ‘일문일답’

“정부출자·정책자금 7조원 마중물  
투자손실 35%까지는 원금보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3조원의 출자금이 후순위 채권을 커버하는 용도로 이용될 것”이라며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손실 35%까지는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뉴딜펀드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수준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보인다.

“뉴딜사업의 경우 대개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어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정책형 펀드에 재정출자를 일부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35% 수준으로 나머지 65%는 민간에서 한다. 인프라펀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이 또한 인프라 펀드가 갖는 특성상 이 정도의 유인요소를 줘야 뉴딜펀드로 작동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인가. 정부출자 7조원은 마중물 성격인가.

“7조원은 정부출자 3조원, 정책자금 4조원으로 마중물 성격이 맞다. 정부출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3조원은 후순위 출자로 이용돼 펀드에 투자를 해 손실이 35% 날때까지는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설명이다. 후순위 출자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상품에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목표수익률을 명확히 할 수 없다. 현재 예금 1년짜리가 0.8%, 국고채가 3년 0.923%, 10년 1.539%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이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제지원은 인프라펀드만 해당하는 데 이유는.

“인프라펀드에 대해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인프라특성상 위험도가 높고 투자기간이 길다. 또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나유리 기자 yu115@